

영유아-어머니 및 영유아-할머니의 그림책 읽기 행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others' and Grand Mothers' Picture Book Reading Behaviors with Young Children

권희경¹

Heekyoung Kwon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mothers' and grand mothers' picture book reading behavior with children of ages 2 and 4.

Methods: Participants were twenty 2 year olds and their mothers/grandmothers as well as twenty 4 year olds and their mothers/grandmothers. Forty pairs of children/mothers and children/grandmothers, respectively, were videotaped as they shared reading a picture book together.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mean, standard deviation, and two-way ANOVA test.

Results: Results indicated that mothers' and grandmothers' picture book reading behavio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verbal behavior. Mothers performed more explanation and questioning, while grandmothers performed more limitation, directing, and correcting. As far as non-verbal behavior is concerned, mothers used more physical gestures, pointing, descriptive gestures, and imitative gestures, whereas grandmothers requested certain actions.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the importance of the mothers'/grandmothers' roles in shared picture book reading with the child.

* 본 논문은 건국대학교 KU학술진흥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¹ 제1저자(교신저자)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유아교육과 교수

(e-mail : bluechess@kku.ac.kr)

key words mothers' book reading behavior, grandmothers' book reading behavior, verbal behavior, non-verbal behavior

I. 서론

영유아와 함께하는 책읽기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 중의 하나이다. 영유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양육자에게 읽어달라고 요구하고 때로는 양육자가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한다. 그림책을 함께 읽는 시간은 영유아와 양육자가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이며 이 시간을 통해 두 사람은 특별한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다(이문정, 2011; 이민경, 2003; Morgan, Nutbrown, & Hannon, 2009). 그림책 읽기를 통해 영유아는 적극적으로 읽기에 참여하게 되고 책읽기를 즐겨 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즉, 그림책 읽기 경험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할 뿐 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기도 한다. 그

림책 읽기 경험은 궁극적으로 영유아가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이문정, 2011). 이와 더불어 그림책 읽기 경험은 영유아의 지능발달, 어휘발달, 문해발달, 의사소통능력발달, 이야기 이해력 및 표현력 발달을 도모한다(신혜영, 김명순, 2008; 이경화 등, 2010; 장유경, 최유리, 2009; Ortiz, Stowe, & Arnold, 2001; Sénéchal & Lefevre, 2002).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은 영유아가 태어난 순간부터 책읽기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책읽기의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부모와 함께 그림책을 읽으면서 영유아는 다양한 형태의 언어적, 인지적 상호작용을 경험 한다. 이와 더불어 시청각적 자원을 활용하여 글 속의 지식을 수용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며 풍부한 인지적 경험을 하게 된다(Robert & Wilson, 2006). 그림책은 영유아들의 지식과 경험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육자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한다(강화자, 박선희, 2008). 그림책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들은 그림책의 이야기에 대해 자기중심적인 평가를 벗어나서 좀 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평가를 하게 된다. 그림책의 이야기 내용을 통해 주변 세계와 작가의 견해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그림책의 주인공, 이야기의 근원에 대해 추론, 예측, 탐구, 발견하는 반응이 관찰되기도 한다(나선희, 현은자, 2010; 마송희, 2002; 이현경, 안지성, 이효원, 2011).

우리나라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부모는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바람직한 양육자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만 2세 미만의 어린 자녀일수록 어린이집 이용보다는 집에서 조부모가 돌봐주는 개별 양육을 더 선호하고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맞벌이 가구가 조부모 및 친인척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비율이 63.6%로 아이돌보미 5.0%, 가정보육사 또는 베이비시터 5.4%보다 훨씬 높다(이운진, 권미경, 김승진, 2015). 또한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문화적으로 친숙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아이가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겪지 않도록 조모나 친척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일본의 10-17% 비율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조부모는 어린 손 자녀에게는 놀이교사, 친구, 애정의 대상 등 여러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 조부모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은주, 강현미, 송주은, 2014).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영유아의 그림책읽기 경험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가장 바람직한 양육자로 인식되고 있는 할머니와의 그림책읽기 경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그림책읽기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부모가 함께 그림책 읽기를 하는 것은 자녀의 지적, 정서적, 사회성 발달이 촉진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손 자녀를 주로 돌보는 할머니가 그림책을 함께 읽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Clark, 2005). 또한 우리나라 가정에서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는 비율이 60%이상인 것을 보면 손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할머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연구된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나 아버지들 대상으로 수행되었다(김민화, 2005; 김태인, 2016; 임수경, 김명순, 2013; 이문정, 2011; 이민경, 2003;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한유진, 유안진, 2001). 따라서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양육자 역할을 하는 할머니들이 그림책을 읽을 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어머니와 할머니의 상호작용 유형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책 읽기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양육자의 상호작용 유형이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영아의 경우에는 명명하기, 주의환기, 설명하기, 신체적 환기, 포인팅 같은 상호작용 유형을 사용하고 유아의 경우에는 질문하기나 피드백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김금주, 2000; 김재순, 김희진, 2003; 김태인, 2016; 임수경, 김명순, 2013). 선행연구들은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양육자의 상호작용 유형이 다름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할머니들의 상호작용 유형이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양육자의 상호작용 유형이나 전략은 영유아의 어휘력, 이야기 구성능력 등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할머니들의 상호작용 유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한유진, 유안진, 2001).

이러한 이유로 영유아의 연령을 달리하면서 어머니와 할머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정 내의 다른 구성원이 함께 읽어주고 자주 읽어줄수록 영유아는 그림책읽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당연히 영유아의 어휘 및 구어발달 뿐만 아니라 전인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Duursma, 2007). 따라서 언어발달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영유아-어머니, 영유아-할머니의 그림책 읽기 행동을 관찰한 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행동은 어머니와 할머니 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동은 어머니와 할머니 간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북도 C시에 거주하면서 A, B C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는 가정의 영유아였다. 만 2세 영아-어머니-할머니 20쌍과 만 4세 유아-어머니-할머니 20쌍으로 총 40쌍이 최종 연구에 참여하였다. 만 2세의 경우는 25쌍이 만 4세의 경우는 23쌍이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나 연구 진행 과정에서 참여 의사 철회, 이사, 어린이집 퇴원 등의 이유로 총 8쌍이 최종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전체 연구 대상 중 남자는 23명(57.5%) 여자는 17명(42.5%)이었다. 만2세 평균 월령은 31개월이었으며 4세 평균 월령은 53개월 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5세(범위 30-41세)였으며, 학력은 고졸 15명(37.5%) 전문대졸 8명(20.0%) 대졸 17(42.5%) 이었다. 할머니

니의 평균 연령은 63세(범위 57-68세)였으며, 학력은 중졸 13명(32.5%) 고졸 27명(67.5%) 이었다.

2. 연구도구

1) 그림책 읽기 행동의 언어적 행동 분석

영유아-어머니, 영유아-할머니 간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 나타나는 언어적 행동은 김재순과 김희진(2003)의 분석기준과 임수경과 김명순(2013)이 수정 보완한 기준을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의 언어적 행동범주는 주의환기(언어 환기, 운율적 환기, 제한하기), 설명하기(명명하기, 묘사하기, 사전경험과 연결, 추론 및 예측, 어머니/할머니의 감정 표현하기), 반응요구(제안하기, 지시하기), 질문하기(정보추구 질문, 기능행동 질문, 선택/판단 질문, 확인 질문), 피드백(칭찬하기, 인정하기, 따라 하기, 교정하기, 확장하기, 요구하기)이다. 주의 환기는 영유아와 그림책을 읽을 때 책에 대한 주의를 끄는 행동으로 언어, 노래, 리듬 등으로 주의 끌기 등을 의미 한다. 설명하기는 책의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 이름을 말하거나 설명하기, 생활경험과 연결하여 말하기, 그림책의 내용에 대해 추론하거나 예측하는 것이다. 반응요구의 경우는 책 내용에 대해 어떻게 할지 제안하거나 해보라고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하기는 책에 있는 그림과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기능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피드백의 경우는 영유아의 언어화 행동표현에 대해 칭찬, 인정, 교정, 확장, 요구, 따라하는 것이다. 각 범주별 신뢰도 계수는 언어 환기 .92, 운율적 환기 .75, 제한하기 .91, 명명하기 .83, 묘사하기 .79, 사전경험과 연결 .83, 추론 및 예측 .85, 부모의 감정표현하기 .74, 제안하기 .86, 지시하기 .81, 정보추구 질문 .84, 기능행동 질문 .83, 선택/판단 질문 .79, 확인 질문 .88, 칭찬하기 .92, 인정하기 .80, 따라 하기 .75, 교정하기 .80, 확장하기 .80, 요구하기 .74 이었다. 영유아와 어머니 그리고 영유아와 할머니의 언어적 행동에 대한 분석은 발화단위로 계산하여 빈도를 확인하였다.

2) 그림책 읽기 행동의 비언어적 행동 분석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은 Feldman, Weller 그리고 Sirota(2003), Newland, Roggman 그리고 Boyce(2001)의 것을 기초로 임수경과 김명순(2013)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비언어적 행동은 신체적 환기, 포인팅, 행동요구, 제스처(기술적 제스처, 모방적 제스처) 신체적 접촉(정서적 접촉, 강압적 접촉), 공감적 행동의 6개 범주로 구성되었다. 신체적 환기는 신체적 표현으로 주의를 끄는 행동이다. 포인팅은 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행동요구는 그림책 내용에 대해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 제스처는 그림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스처 이고 모방적 제스처는 영유아의 행동을 따라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정서적 접촉은 그림책을 읽으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의미하며 강압적 접촉은 그림책을 읽기위해 영유아와 강압적으로 하는 접촉을 말한다. 각 범주별 신뢰도는 신체적 환기 .86, 포인팅 .87, 행동요구 .86, 기술적 제스처 .84, 모방적 제스처 .89, 정서적 접촉 .79, 강압적 접촉 .78, 공감적 행동 .78 이었다. 영유아와 어머니 그리고 영유아와 할머니의 비언어적 행동은 빈도를 확인하여 계산하였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 본 연구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그림책 선정, 분석도구에 대한 적절성, 그림책 읽기 시간, 녹화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예비조사와 본 조사에 사용할 그림책을 선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에서(김재순, 김희진, 2003; 이효원, 문서림, 조희숙, 2015) 추천한 그림책을 바탕으로 4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유아교육 전문가 2인과 협의하여 주제가 서로 다르고 그림책의 쪽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검피 아저씨의 뱃노래’와 ‘도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선정하였다. 예비조사는 2세 및 4세 영유아-어머니-할머니 각각 2쌍씩 총 2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그림책에 대한 친숙도, 글의 분량, 그림책의 종류에 따라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림책 읽기 행동에 대해 점검하였다.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연구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예비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비디오촬영을 진행하였다. 비디오 촬영본을 통해 영유아-어머니-할머니 그림책 읽기 행동에 대해 분석하고 본 조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점검하였다.

2) 검사자 훈련

예비조사에서 촬영된 비디오 자료를 가지고 3명의 연구 보조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보조자들은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교사경력 이 1-3년인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총 4회의 훈련 중 2회는 검사에 대한 내용설명과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한 뒤 비디오 자료를 시청 하면서 평정하는 과정을 진행되었다. 나머지 2회의 훈련은 비디오 자료를 보면서 평정을 진행하고 각자가 평정한 내용을 서로 비교 분석하여 차이가 나게 평정된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다시 재 평정과 논의를 진행하여 평정자간 일치도를 높였다. 이러한 훈련 과정을 통해 확보된 검사자간 신뢰도는 98% 이었다.

3) 본 조사

본 조사는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영유아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진행되었다. 영유아들이 그림책읽기 활동에 대해 최대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어린이집의 익숙한 장소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림책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어머니들에게 연구 내용에 대해 교사가 설명하였으며 할머니들에게는 어머니가 연구내용을 설명하도록 부탁하였다. 그림책 읽기 행동을 촬영하기 전에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연구자와 교사가 다시 연구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먼저 영유아와 어머니가 그림책 읽기를 진행하였고 그동안 할머니는 어린이집의 다른 공간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기다리는 동안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였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였다. 어머니와의 그림책 읽기가 끝난 후에 할머니와의 그림책 읽기를 진행하였다. 영유아가 연속해서 책을 읽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머니와 시간 약속을 따로 잡아 다른 날 연구를 진행하였다. 어머니들의 경우에도 사

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할머니와 다른 날 어린이집으로 방문하여 영유아와 그림책 읽기를 하였고 녹화를 진행하였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영유아, 어머니, 할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최대한 녹화를 방해받지 않도록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만 2세와 4세 영유아 모두 ‘검피 아저씨의 뱃노래’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읽도록 하였다. 영유아와 어머니 및 영유아와 할머니가 그림책 읽기를 하는 동안 연구자는 초시계로 각각의 그림책 읽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림책 읽기 과정은 책을 펴는 순간부터 덮는 순간까지 녹화되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언어적 행동에 대한 분석은 녹화한 비디오 자료 80쌍 중 12쌍을 전사한 후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3인이 12쌍을 각자 보면서 분석하였다. 12쌍에 대한 분석결과의 일치도는 95% 이었다. 나머지 68쌍의 녹화본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3인이 14쌍에서 16쌍씩 각자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자 분석한 자료 중 2쌍을 무작위로 뽑아 총 8쌍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97%의 일치도를 보였다. 영유아와 어머니 그리고 영유아와 할머니의 언어적 행동의 경우는 발화단위로 계산하여 빈도를 확인하였다. 비언어적 행동의 경우도 빈도를 확인하여 계산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 문제에 따라 빈도 및 백분율, 그리고 이원변량분석을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와 할머니 간에 나타나는 그림책 읽기 언어적 행동

어머니와 할머니가 영유아와 함께 1권의 책을 읽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은 다음과 같다. 만 2세 어머니 쌍은 최저 3분 45초에서 최고 14분 35초이었고 할머니의 경우는 최저 3분 15초에서 최고 15분 25초 이었다. 만 4세 어머니 쌍은 최저 3분 15초에서 최고 13분 58초 이었고 할머니는 최저 3분 30초에서 최고 14분 20초 이었다. 만 2세 영아-어머니-할머니 쌍과 만 4세 유아-어머니-할머니 쌍의 책읽기 시간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와 할머니의 언어적 행동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언어적 행동의 각 하위 범주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면 만 2세와 만 4세의 언어적 행동 총 횟수는 각각 37.72와 38.41이었으며 어머니와 할머니의 언어적 행동 총 횟수는 각각 44.47과 31.71이었다.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와 할머니의 언어적 행동이 차이가 있는가를 이원변량 분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책읽기 상호작용 시 나타나는 언어적 행동은 모든 하위 범주에서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머니와 할머니 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하위 범주에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와 할머니간의 차이를 하위범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먼저 주의환기 중 언어환기의 경우 어머니와 할머니 간 차

〈표 1〉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와 할머니의 언어적 행동 평균과 표준편차 ($N = 80$)

언어적 행동	2세		4세		소계	
	어머니($n=20$)	할머니($n=20$)	어머니($n=20$)	할머니($n=20$)	어머니($n=40$)	할머니($n=40$)
	$M(SD)$	$M(SD)$	$M(SD)$	$M(SD)$	$M(SD)$	$M(SD)$
주의 환기						
언어환기	14.55(6.00)	9.30(3.53)	11.85(2.91)	9.10(2.34)	13.20(4.85)	9.20(2.95)
제한하기	5.00(1.34)	6.50(2.33)	4.25(1.48)	5.65(2.18)	4.62(1.44)	6.08(2.27)
소계	8.84(3.30)		7.71(2.23)		8.91(4.73)	7.64(2.61)
설명하기						
명명하기	12.95(4.05)	9.35(3.03)	12.10(3.00)	10.53(3.37)	12.53(3.52)	9.92(3.22)
묘사하기	14.85(2.37)	8.40(3.73)	12.35(3.10)	9.35(2.76)	13.60(3.00)	8.87(3.28)
사전경험과 연결	5.15(2.08)	3.15(1.35)	5.25(1.71)	3.50(1.57)	5.20(1.88)	3.32(1.46)
추론 및 예측	4.05(.76)	2.45(1.85)	5.10(2.69)	2.00(1.52)	4.57(2.02)	2.22(1.69)
소계	7.54(2.40)		7.52(2.47)		8.98(2.61)	6.08(2.41)
반응요구						
제안하기	5.00(2.75)	2.95(1.73)	5.55(3.14)	4.25(.79)	5.27(2.93)	3.60(1.48)
지시하기	3.55(1.28)	4.95(2.48)	3.50(1.40)	4.15(1.04)	3.53(1.32)	4.55(1.92)
소계	4.11(2.06)		4.36(1.59)		4.40(2.13)	4.08(1.70)
질문하기						
정보추구질문	14.80(4.62)	8.35(1.04)	17.35(4.95)	8.15(1.50)	16.07(4.90)	8.25(1.28)
기능행동질문	7.85(1.25)	4.32(1.20)	10.50(2.53)	4.67(1.25)	9.18(1.90)	4.50(1.23)
확인질문	25.15(7.02)	18.85(6.31)	27.45(5.01)	19.30(5.34)	26.30(6.02)	19.08(5.83)
소계	13.22(3.57)		14.57(3.43)		17.18(4.27)	10.61(2.78)
피드백						
칭찬하기	4.20(1.15)	1.85(.67)	4.50(1.49)	2.00(.95)	4.35(1.32)	1.93(.81)
인정하기	4.65(.59)	2.00(1.03)	5.05(1.91)	1.90(1.02)	4.85(1.25)	1.95(1.01)
교정하기	4.90(1.14)	6.30(2.11)	5.75(1.28)	5.05(1.92)	5.33(1.21)	5.68(2.02)
확장하기	5.15(2.31)	3.01(1.76)	5.78(3.01)	3.99(.81)	5.47(2.66)	3.50(1.29)
소계	4.01(1.35)		4.25(1.55)		5.00(1.61)	3.30(1.28)
전체	37.72(12.68)		38.41(11.27)		44.47(15.35)	31.71(10.78)

이가 있었다. 어머니 횡수는($M = 13.20$, $SD = 4.85$) 할머니 횡수보다($M = 9.20$, $SD = 2.95$) 많았으며($F = 20.52$, $p < .001$), 제한하기는 어머니 횡수보다($M = 4.62$, $SD = 1.44$) 할머니 횡수가($M = 6.08$, $SD = 2.27$) 많았다($F = 11.87$, $p < .001$). 설명하기의 모든 하위 범주에서 어머니 횡수가 할머니 횡수보다 많았다. 명명하기의 어머니 횡수는($M = 12.53$, $SD = 3.52$) 할머니 횡수보다($M = 9.92$, $SD = 3.22$) 많았고($F = 11.57$, $p < .001$), 묘사하기도 어머니 횡수가($M = 13.60$, $SD = 3.00$) 할머니 횡수보다($M = 8.87$, $SD = 3.28$) 많았다($F = 48.59$, $p < .001$). 사전경험 과 연결의 어머니 횡수와($M = 5.20$, $SD = 1.88$) 할머니 횡수도($M = 3.32$, $SD = 1.46$) 차이가 있었으며($F = 24.31$, $p < .001$). 추론 및 예측

<표 2>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와 할머니의 언어적 행동 이원변량분석 (N = 80)

영역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주의환기	언어환기	연령	42.05	1	42.05	2.70
	어머니/할머니	320.00	1	320.00	20.52***	
	연령*어머니/할머니	31.25	1	31.25	2.00	
제한하기	연령	12.80	1	12.80	3.61	
	어머니/할머니	42.05	1	42.05	11.87***	
	연령*어머니/할머니	1.05	1	1.05	.91	
설명하기	명명하기	연령	1.01	1	1.01	.05
	어머니/할머니	148.51	1	148.51	11.57***	
	연령*어머니/할머니	15.31	1	15.31	1.76	
묘사하기	연령	12.01	1	12.01	1.31	
	어머니/할머니	446.51	1	446.51	48.59***	
	연령*어머니/할머니	59.51	1	59.51	6.48	
사전경험과 연결	연령	1.01	1	1.01	.35	
	어머니/할머니	70.31	1	70.31	24.31***	
	연령*어머니/할머니	.85	1	.85	.19	
추론 및 예측	연령	1.80	1	1.80	.53	
	어머니/할머니	110.45	1	110.45	32.57***	
	연령*어머니/할머니	11.25	1	11.25	3.32	
반응요구	제안하기	연령	17.11	1	17.11	3.25
	어머니/할머니	56.11	1	56.11	10.67**	
	연령*어머니/할머니	13.51	1	13.51	2.81	
지시하기	연령	3.58	1	3.58	1.34	
	어머니/할머니	21.01	1	21.01	7.77**	
	연령*어머니/할머니	2.81	1	2.81	1.04	
질문하기	정보추구 질문	연령	27.61	1	27.61	2.25
	어머니/할머니	1224.61	1	1224.61	99.77***	
	연령*어머니/할머니	37.81	1	37.81	3.08	
기능행동 질문	연령	12.07	1	12.07	1.05	
	어머니/할머니	48.15	1	48.15	8.97**	
	연령*어머니/할머니	15.08	1	15.08	2.01	
확인질문	연령	387.20	1	387.20	14.54	
	어머니/할머니	1820.05	1	1820.05	67.72***	
	연령*어머니/할머니	168.20	1	168.20	9.91	
피드백	칭찬하기	연령	2.11	1	2.11	1.39
	어머니/할머니	46.51	1	46.51	30.49***	
	연령*어머니/할머니	13.61	1	13.61	8.92	
인정하기	연령	26.45	1	26.45	17.44	
	어머니/할머니	304.20	1	304.20	200.51***	
	연령*어머니/할머니	31.25	1	31.25	20.60	
교정하기	연령	18.31	1	18.31	3.55	
	어머니/할머니	54.01	1	54.01	10.16***	
	연령*어머니/할머니	9.03	1	9.03	1.09	
확장하기	연령	15.09	1	15.09	2.98	
	어머니/할머니	55.27	1	55.27	9.72**	
	연령*어머니/할머니	13.34	1	13.34	2.58	

** p < .01 *** p < .001.

도 어머니 횡수가($M=4.57, SD=2.02$) 할머니 횡수보다($M=2.22, SD=1.69$) 많았다($F=32.57, p<.001$). 반응요구의 경우는 제안하기와 지시하기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제안하기는 어머니 횡수가($M=5.27, SD=2.93$) 할머니 횡수보다($M=3.60, SD=1.48$) 많았으며($F=10.67, p<.01$), 지시하기는 어머니 횡수보다($M=3.53, SD=1.32$) 할머니 횡수가($M=4.55, SD=1.92$) 많았다($F=7.77, p<.01$). 질문하기의 모든 하위범주에서는 어머니 횡수가 할머니 횡수보다 많았다. 정보 추구질문은 어머니 횡수가($M=16.07, SD=4.90$) 할머니 횡수보다($M=8.25, SD=1.28$) 많았으며($F=99.77, p<.001$), 기능행동질문도 어머니 횡수가($M=9.18, SD=1.90$) 할머니 횡수보다($M=4.50, SD=1.23$) 많았고($F=8.97, p<.01$), 확인질문도 어머니 횡수가($M=26.30, SD=6.02$) 할머니 횡수보다($M=19.08, SD=5.83$) 많았다($F=67.72, p<.001$). 마지막으로 피드백의 경우는 칭찬하기, 인정하기, 확장하기에서는 어머니 횡수가 할머니 횡수보다 많았고 교정하기의 경우는 어머니 횡수보다 할머니 횡수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칭찬하기는 어머니 횡수가($M=4.35, SD=1.32$) 할머니 횡수보다($M=1.93, SD=.81$) 많았고($F=30.49, p<.001$), 인정하기도 어머니 횡수가($M=4.85, SD=1.25$) 할머니 횡수보다($M=1.95, SD=1.01$) 많았다($F=200.51, p<.001$). 교정하기는 어머니 횡수가($M=5.33, SD=1.21$) 할머니 횡수보다($M=5.68, SD=2.02$) 적었고($F=10.16, p<.001$), 확장하기의 경우는 어머니 횡수가($M=5.47, SD=2.66$) 할머니 횡수보다($M=3.50, SD=1.29$) 많았다($F=9.72, p<.01$).

2.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와 할머니 간에 나타나는 그림책 읽기 비언어적 행동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와 할머니의 비언어적 행동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언어적 행동의 각 하위 범주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면 만 2

<표 3>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와 할머니의 비언어적 행동 평균과 표준편차 ($N=80$)

비언어적 행동	2세		4세		소계	
	어머니($n=20$)	할머니($n=20$)	어머니($n=20$)	할머니($n=20$)	어머니($n=40$)	할머니($n=40$)
	$M(SD)$	$M(SD)$	$M(SD)$	$M(SD)$	$M(SD)$	$M(SD)$
신체적 환기	2.09(1.04)	4.42(2.13)	2.50(1.28)	3.43(2.00)	2.30(1.16)	3.93(2.07)
소계	3.26(1.59)		2.97(1.59)		2.30(1.16)	3.93(2.07)
포인팅	10.59(4.11)	7.53(3.85)	10.00(3.15)	8.25(3.15)	10.30(3.63)	7.89(3.50)
소계	9.06(3.98)		9.13(3.15)		10.30(3.63)	7.89(3.50)
행동요구	1.50(0.72)	2.90(1.20)	1.55(0.85)	2.10(1.30)	1.53(0.79)	2.50(1.25)
소계	2.20(0.96)		1.83(1.08)		1.53(0.79)	2.50(1.25)
제스처						
기술적 제스처	2.21(1.51)	1.46(0.78)	2.60(1.24)	1.49(0.95)	2.41(1.98)	1.48(0.87)
모방적 제스처	3.85(1.36)	1.32(0.70)	6.50(2.72)	1.67(0.82)	5.18(2.04)	1.50(0.76)
소계	2.21(1.09)		3.07(1.43)		3.80(2.01)	1.49(0.82)
전체	16.73(7.62)		17.00(7.30)		17.93(7.59)	15.81(7.64)

<표 4>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와 할머니의 비언어적 행동 이원변량분석 (N = 80)

영역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신체적 환기	연령	4.62	1	4.62	2.31	
	어머니/할머니	28.11	1	28.11	9.67**	
	연령*어머니/할머니	1.89	1	1.89	.57	
포인팅	연령	3.55	1	3.55	1.05	
	어머니/할머니	23.95	1	23.95	9.12**	
	연령*어머니/할머니	2.30	1	2.30	1.25	
행동요구	연령	3.08	1	3.08	1.21	
	어머니/할머니	15.11	1	15.11	5.67**	
	연령*어머니/할머니	1.09	1	1.09	.86	
제스처	기술적 제스처	연령	1.05	1	1.05	.95
		어머니/할머니	7.02	1	7.02	7.62**
		연령*어머니/할머니	2.05	1	2.05	2.34
	모방적 제스처	연령	3.16	1	3.16	.89
		어머니/할머니	13.55	1	13.55	4.32**
		연령*어머니/할머니	4.11	1	4.11	.95

** $p < .01$.

세와 만 4세의 언어적 행동 총 횟수는 각각 16.73과 17.00이었으며 어머니와 할머니의 비언어적 행동 총 횟수는 각각 17.93과 15.81이었다.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와 할머니의 언어적 행동이 차이가 있는가를 이원변량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와 할머니의 비언어적 행동이 차이가 있는가를 이원변량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책읽기 상호작용 시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동은 모든 하위 범주에서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머니와 할머니 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환기의 경우 어머니 횟수가($M=2.30$, $SD=1.16$) 할머니 횟수보다($M=3.93$, $SD=2.07$) 적었다($F=9.67$, $p<.01$). 포인팅의 경우는 어머니 횟수가($M=10.30$, $SD=3.63$) 할머니 횟수보다($M=7.89$, $SD=3.50$) 많았다($F=9.12$, $p<.01$). 행동요구의 경우는 신체적 환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 횟수가($M=1.53$, $SD=0.79$) 할머니 횟수보다($M=2.50$, $SD=1.25$) 적었다($F=5.67$, $p<.01$). 제스처의 하위 항목의 경우 기술적 제스처는 어머니 횟수가($M=2.41$, $SD=1.98$) 할머니 횟수보다($M=1.48$, $SD=0.87$) 많았으며($F=7.62$, $p<.01$), 모방적 제스처도 어머니 횟수가($M=5.18$, $SD=2.04$) 할머니 횟수보다($M=1.50$, $SD=0.76$) 많았다($F=4.32$, $p<.01$).

Ⅲ.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 읽기를 할 때 나타나는 언어적 행동이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와 할머니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언어적 행동의 모든 하위 범주에서 2세와 4세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의 언어적 행동이 연령차가 있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김계순, 김희진, 2003). 본 연구는 주로 어머니나 아버지를 대상으로 수행된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언어적 행동을 비교하는 연구이었다.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평균횟수를 살펴보면 2세 어머니와 4세 어머니의 평균횟수는 차이가 있으나 2세 할머니와 4세 할머니의 평균횟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 2세 할머니와 4세 할머니의 평균횟수가 거의 차이가 없어 2세와 4세간 연령차이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서의 언어적 행동이 어머니와 할머니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언어적 행동에서 어머니 횟수가 할머니 횟수보다 많았다. 설명하기, 질문하기의 경우는 모든 하위 범주에서 어머니가 할머니보다 횟수가 많았으며 주의 환기 중 제한하기, 반응요구 중 지시하기, 피드백 중에서는 교정하기에서 할머니 횟수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1, 2세 영아를 대상으로 수행된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림책 읽기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김태인, 2016; 임수경, 김명순, 2013).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보여준 언어적 행동들은 언어 환기, 명명하기, 묘사하기, 사전경험과 연결, 추론 및 예측, 제안하기, 정보추구질문, 기능행동질문, 확인질문, 칭찬하기, 인정하기, 확장하기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책 읽기에서 어머니와 할머니가 서로 다른 언어적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어머니들은 영유아가 그림책 읽기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몰입할 수 있도록 영유아를 우선시하는 행동을 더 빈번하게 하는 반면 할머니들은 할머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림책 읽기 행동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어머니들의 상호작용 유형은 영유아와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서 비계설정을 해주는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영유아의 사고를 확장시켜주며 영유아의 반응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다른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임수경, 김명순, 2013; Hammett, VanKleeck, & Huberty, 2003; Schwartz, 2004). 또한 어머니들이 언어 환기, 묘사하기, 기능행동질문, 확장하기를 많이 하였다는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김태인, 2016).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어머니는 영유아와 그림책 읽기를 할 때 영유아가 좀 더 능동적으로 책읽기에 몰입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그림책 읽기는 영유아의 수리력, 어휘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는 연구 결과와(장영은, 이숙정, 이강이, 2008) 연계해 볼 때 그림책 읽기 행동에서 보여주는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림책 읽기에서 제한하기 행동은 영유아의 바르지 않은 태도나 책의 특정한 면에 주의를 끌기 위해 언어와 행동을 제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또한 지시하기 행동은 양육자의 필요나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영유아에게 ‘이거 읽어봐’, ‘이거 넘겨봐’와 같은 요청과 지시하기를 하고, 교

정하기 행동은 그림책을 읽으면서 영유아의 언어와 행동표현을 교정하기 위해 ‘이건 ~~이지 ~~가 아니야’라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김재순, 김희진, 2003). 본 연구에서 할머니들이 빈번하게 보여준 언어적 행동을 보면 제한하기, 지시하기, 교정하기 등으로 할머니들은 영유아들과 그림책 읽기를 할 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는 행동을 많이 하는 주도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할머니들이 지시하기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진 본 연구 결과는 영아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아버지가 지시하기를 사용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반면(박미정, 2006; Durrsma, 2007) 어머니가 지시하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임수경, 김명순, 2013; Blake, Macdonald, Brayrami, Agosta, & Milian, 2006). 할머니들은 제한하기와 교정하기 행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아버지들이 교정하기 행동을 한다고 밝힌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김태인, 2016).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할머니의 그림책읽기 행동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할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추후 연구가 수행될 때 이에 대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동이 어머니와 할머니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비언어적 행동의 모든 하위 범주에서 2세와 4세간의 연령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언어적 행동에서 연령 차이가 있었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과는 일치하지 않은 것이다(김재순, 김희진, 2003; Silinskas, Leppänen, Aunola, Parrila, & Nurmi, 2010). 본 연구의 언어적 행동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언어적 행동에서도 연령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2세와 4세 할머니들의 비언어적 행동 횟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표 3> 참조). 추후 연구에서 어머니와 할머니 또는 아버지와 할머니를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연령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할머니들이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가 63.6%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윤진, 권미경, 김승진, 2015). 따라서 추후에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서의 비언어적 행동이 어머니와 할머니 간에 차이가 있는 가를 살펴본 결과 행동요구를 제외하고 모든 하위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신체적 환기, 포인팅, 제스처(기술적 제스처, 모방적 제스처)에서 어머니는 할머니 보다 횟수가 많았고 행동요구의 경우에만 할머니가 어머니보다 횟수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적 행동에서 보여준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언어적 행동에서도 어머니들은 신체적 환기, 포인팅, 제스처 등을 사용하면서 비계설정행동을 하여 영유아가 그림책읽기에 몰입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언어적 행동에서 할머니들은 영유아에 대한 행동요구를 어머니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언어적 행동에서 할머니들이 보여준 결과와 유사하다. 비언어적 행동에서도 할머니들은 영유아의 행동을 확장하기 보다는 영유아에게 요구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할머니가 주도하는 행동을 보였다.

본 연구는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림책 읽기 행동이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림책 읽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영유아와 함께 그림책 읽기를 하는 것이 영유아의 인지발달, 언어발달, 수리력, 학업성취도, 정서발달 등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장영은, 이숙정, 이강이, 2008; Reese, Cox, Harte, & Mccanally,

2003). 그러므로 그림책 읽기에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행동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살핀 본 연구의 결과는 두 양육자의 서로 다른 행동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그 간극을 좁히는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에 대한 양육방식이 양육자마다 다를 경우 영유아들은 혼란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양육방식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일관성 있는 양육방식의 중요성도 밝혀지고 있으므로 어머니와 할머니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점점 증가하여 할머니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기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수행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와 조모에 의해 양육되는 영아들의 언어발달을 살핀 연구에서 조모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영아보다 언어발달이 늦었다는 연구를(김반재, 장성오, 2011) 통해서도 할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을 지원하거나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교육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은 영유아와 어머니 및 영유아와 할머니를 대상으로 그림책 읽기 행동의 차이를 규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자 수가 작아 결과를 일반화 할 때 신중해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 좀 더 많은 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와 어머니 뿐 만아니라 영유아와 아버지 그리고 영유아와 할머니까지 대상을 넓혀 연구를 진행하여 영유아를 둘러싼 가정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을 영유아의 가정이 아닌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영유아와 어머니 및 영유아와 할머니가 연구 수행에 대해 불편함을 경험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가정에서 연구를 수행한다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가정에서 연구할 경우 가정 문해 환경에 대한 파악도 가능하여 가정문해환경과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유형에 대한 관련성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화자, 박선희 (2008). 2세 영아의 그림책에 대한 반응 유형.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4), 387-416.
- 김금주 (2000).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과 영아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화 (2005).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난 그림책, 영아, 어머니의 삼자간 의사소통.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6(2), 19-51.
- 김반재, 장성오 (2011). 일반부모양육 영아와 조부모양육 영아의 언어발달 차이. **한국영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5(1), 207-221.
- 김은주, 강현미, 송주은 (2014).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한 조부모양육에 관한 이미지 연구. **육아지**

- 원연구, 9(2), 5-28.
- 김재순, 김희진 (2003). 만 2, 4세 유아와 어머니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3), 57-71.
- 김태인 (2016). 만 1세 영아와 어머니, 아버지와의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양상. **유아교육학논집**, 20(2), 449-470.
- 나선희, 현은자 (2010). 유아의 그림책에 대한 의미구성과정: 자서전적 상호텍스트를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1(1), 131-158.
- 마송희 (2002). 소집단 읽어주기 상황에서 연령, 집단구성, 그리고 반복 읽기가 유아의 반응과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2(4), 51-72.
- 박미정 (2006). 유아기 부모의 자녀와의 상호작용 비교 연구: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영, 김명순 (2008). 저소득 가정 부모의 문해발달태도 및 가정 문해활동과 유아의 어휘력, 인쇄물개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9(4), 199-212.
- 임수경, 김명순 (2013). 만 2세 영아-어머니, 영아-아버지의 그림책 읽기행동 및 가정문해환경과 영아의 어휘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4(3), 1-19.
- 이경화, 조순옥, 김정원, 심은희, 이연규, 이문정 (2010). **영유아를 위한 언어교육**. 서울: 창지사.
- 이문정 (2011). 자녀에게 책 읽어주기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식 및 실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281-303.
- 이민경 (2003). 영아-어머니 애착안정성과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열린유아교육연구**, 8(2), 161-181.
- 이윤진, 권미경, 김승진 (2015).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연구보고 2015-10).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어머니의 책읽기 상호작용 유형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31-146.
- 이현경, 안지성, 이효원 (2011). 포스트모던 그림책 읽기에 드러난 유아들의 의미구성 과정 탐색.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2(1), 199-221.
- 이효원, 문서림, 조희숙 (2015). 만 3세 유아들의 그림책 반복적 읽기에 관한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4(1), 1-27.
- 장영은, 이숙정, 이강이 (2008). 어머니의 책읽기와 유아교사의 민감성 및 수용성이 저소득 가정 유아의 어휘력과 수리력에 미치는 영향: 성, 연령,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보육경험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1), 117-129.
- 장유경, 최유리 (2009). 영아기 가정의 책읽기 경험과 지능발달: 종단연구. **아동학회지**, 30(4), 1-10.
- 한유진, 유안진 (2001). 그림책 읽기에서 유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전략과 유아의 이야기 구성능력. **아동학회지**, 22(1), 147-162.
- Blake, J., Macdonald, S., Brayrami, L., Agosta, V., & Milian, A. (2006). Book reading styles in

- dual-parent and single-mother famili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3), 501-515.
- Clark, C. (2005). Father involvement and children's literacy outcomes. *Literacy Today*, 42(1), 13-15.
- Duursma, A. E. (2007). Parenting book reading in low-income families: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fathers and mothers in frequency and style of reading and the impact on children's language and literacy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USA.
- Feldman, R., Weller, A., Sirota, L., & Eidelman, A. I. (2003). Testing a family intervention hypothesis: The contribution of mother-infant skin to skin contact (kangaroo care) to family interaction, proximity, and tou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1), 94-107.
- Hammett, L. A., VanKleeck, A., & Huberty, C. J. (2003). Patterns of parents' extratextual interactions during book sharing with preschool children: A cluster analysis study. *Reading Research Quarterly*, 38(4), 442-468.
- Morgan, A., Nutbrown, C., & Hannon, P. (2009). Fathers' involvement in young children's literacy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family literacy programmes.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5(2), 167-185.
- Newland, L. A., Roggman, L. A., & Boyce, L. K. (2001). The development of social toy play and language in infancy. *Infancy behavior & Development*, 24(1), 1-25.
- Ortiz, C., Stowe, R. M., & Arnold, D. H. (2001). Parental influence on child interest in shared picture book read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6(2), 268-281.
- Reese, E., Cox, A., Harte, D., & Mccanally, H. (2003). Diversity in adults' styles of feeding books to children. In A. VanKleeck, S. A. Stahl, & E. B. Bauer (Eds), *On reading books to children: Parents and Teachers* (pp. 37-57). Mahwah, NJ: Lawrence Erlbaum.
- Robert, M. S., & Wilson, J. D. (2006). Reading attitude and instructional methodology: How might achievement become affected? *Reading Improvement*, 42(3), 64-69.
- Schwartz, J. I. (2004). An observational study of mother/child and father/child interactions in story reading.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9(2), 105-116.
- Sénéchal, M., & Lefevre, J. (2002). Parental involvement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reading skill: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3(2), 445-460.
- Silinskas, G., Leppänen, U., Aunola, K., Parrila, R., & Nurmi, J. E. (2010). Predictors of mothers' and fathers' teaching of reading and mathematics during kindergarten and grade 1. *Learning and Instruction*, 20(1), 61-71.

논문투고: 17.03.07
수정원고접수: 17.03.27
최종게재결정: 17.04.10